

2015 / 06 / 18 (THU)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1%대 상승세.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형성된 가운데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마감.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 LED주 급등세.

수급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수세로 서울반도체, 일진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테크윈 강세. 반면 동반매도세가 나타난 LG이노텍, 삼성SDS 약세.

종목별로는 악재가 대부분 해소됐고 사파이어 웨이퍼·잉곳의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에 일진디스플레이가 8.6%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161 억	삼성에스디에	-89 억
삼성SDI	134 억	컴투스	-60 억
NAVER	63 억	SK C&C	-39 억
삼성테크윈	62 억	원익IPS	-36 억
다음카카오	52 억	웹젠	-34 억
SK하이닉스	44 억	LG이노텍	-25 억
서울반도체	43 억	NHN엔터	-13 억
일진디스플레이	24 억	MDS테크	-9 억
LG디스플레이	20 억	코나아이	-9 억
엔씨소프트	19 억	위메이드	-8 억
LG전자	15 억	유진테크	-7 억
OCT머티리얼	15 억	LS산전	-6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컴투스	103 억	삼성전자	-173 억
NAVER	82 억	SK하이닉스	-82 억
삼성SDI	71 억	삼성에스디에	-62 억
SK C&C	67 억	엔씨소프트	-59 억
동진세미켄	37 억	LG디스플레이	-44 억
다음카카오	34 억	삼성테크윈	-43 억
비야트론	21 억	LG전자	-41 억
코나아이	20 억	아이원스	-29 억
실리콘웍스	16 억	삼성전기	-21 억
테라세미콘	13 억	LG이노텍	-15 억
게임빌	11 억	유니셀	-15 억
원익IPS	11 억	아이컴포넌트	-13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932.44	-0.2%	-8.7%
DDR3 2Gb (Spot)	1.59 \$	-1.2%	-28.1%
NAND 64Gb (Spot)	2.65 \$	0.4%	9.5%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1.47	1.2%	-6.8%	527 억	-204 억
KRX Semicon	1,920.94	1.9%	2.4%	271 억	-212 억
(코) 반도체	998.16	1.6%	25.2%	85 억	117 억
(코) IT H/W	409.52	1.7%	17.5%	188 억	72 억
(코) IT S/W	2,186.47	2.1%	9.4%	4 억	202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54,000	-0.1%	-5.5%	161 억	-173 억
LG전자	50,700	0.8%	-14.2%	15 억	-41 억
삼성SDI	123,000	7.0%	6.0%	134 억	71 억
삼성테크윈	31,200	5.4%	30.8%	62 억	-43 억
서울반도체	16,950	11.1%	-16.1%	43 억	6 억
신도리코	67,000	-0.1%	-1.2%	2 억	-2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4,950	1.7%	-5.9%	44 억	-82 억
이오테크닉스	91,300	3.4%	-27.1%	7 억	-6 억
원익IPS	14,600	-0.7%	4.7%	-36 억	11 억
리노공업	49,500	3.1%	29.2%	-4 억	10 억
유진테크	17,150	-1.4%	6.2%	-7 억	4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4,500	-2.5%	-13.3%	-89 억	-62 억
SK C&C	272,500	2.6%	27.6%	-39 억	67 억
포스코 ICT	5,040	0.4%	-4.9%	1 억	0 억
다우기술	16,600	1.2%	38.9%	4 억	0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0,000	0.5%	-11.5%	63 억	82 억
다음카카오	106,400	4.6%	-13.9%	52 억	34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6,350	-0.2%	-21.7%	20 억	-44 억
에스에프에이	49,150	0.2%	-1.0%	-2 억	1 억
솔브레인	47,950	2.5%	49.1%	4 억	2 억
덕산하이메탈	8,170	1.9%	-26.7%	1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3,400	0.6%	-2.4%	5 억	-21 억
LG이노텍	98,600	-3.3%	-12.4%	-25 억	-15 억
파트론	8,500	3.0%	-27.7%	4 억	5 억
루멘스	4,760	8.2%	-32.5%	13 억	-2 억
일진디스플레이	9,370	8.6%	37.4%	24 억	-9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5,500	-0.3%	1.9%	19 억	-59 억
컴투스	135,100	7.4%	-7.2%	-60 억	103 억
NHN엔터테인먼트	53,900	0.9%	-38.4%	-13 억	-11 억
게임빌	94,000	4.7%	-22.1%	1 억	11 억
위메이드	37,450	1.2%	-0.9%	-8 억	-2 억
선데이토즈	15,900	0.6%	-7.6%	0 억	1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41,000	-1.7%	458.4%	-2 억	5 억
한글과컴퓨터	17,950	0.8%	-11.1%	8 억	-8 억
코나아이	32,900	4.4%	-2.4%	-9 억	20 억
슈프리카	20,450	2.3%	-19.6%	2 억	0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2.33	0.1%	3.6%
MSCI Internet	159.66	0.4%	4.5%
MSCI Software	171.00	0.2%	4.5%
MSCI Semicon	219.76	0.3%	-0.2%
MSCI IT Services	124.12	0.0%	5.4%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6.60	0.3%	3.0%
Facebook	81.79	0.9%	4.8%
Tencent	154.30	0.1%	37.2%
Baidu	209.51	2.2%	-8.1%
Yahoo	40.96	0.8%	-18.9%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97	0.3%	-1.0%
Oracle	44.91	0.6%	-0.1%
SAP	72.89	-0.1%	4.7%
EMC	27.25	0.4%	-8.4%
Symantec	24.10	1.9%	-6.1%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30	-0.2%	15.3%
Nokia	7.12	-0.3%	-9.4%
Lenovo	11.06	1.8%	8.4%
ZTE	20.45	-1.0%	21.4%
HTC	79.7	1.3%	-43.9%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95	1.0%	-12.0%
Qualcomm	66.55	0.1%	-10.5%
Texas Instruments	53.29	0.4%	-0.3%
Micron	24.48	1.0%	-30.1%
Toshiba	435	-1.2%	-15.1%
Renesas	911	-1.8%	10.7%
STMicro	8.08	-2.9%	8.2%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7.17	0.2%	4.2%
HP	32.21	1.8%	-19.7%
Accenture	96.93	0.2%	8.5%
Fujitsu	718	-0.6%	11.4%
NTT Data	5,320	-0.9%	17.8%
CSC	67.31	0.6%	6.8%

Hardware

close	1D	YTD	
GE	27.27	0.2%	7.9%
Panasonic	1,725	-1.3%	20.8%
SONY	3,699	-1.7%	49.6%
Whirlpool	185.55	0.9%	-4.2%
Electrolux	262.40	-0.6%	14.7%
Haier	21.75	0.7%	17.8%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19,925	0.2%	50.4%
KYOCERA	6,433	-0.3%	15.8%
Nidec	9,066	-1.4%	15.5%
TDK	9,840	0.1%	37.4%
Ibiden	2,126	-1.3%	18.9%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8	-1.2%	-37.3%
Japan Display	511	-5.0%	38.1%
AUO	4.68	1.1%	-8.1%
Innolux	16.75	3.7%	8.8%

전자부품 Component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일진디스플레이	8.6%	최근이슈

News & Issue

일진디스플레이, 악재 대부분 해소

일진디스플레이가 악재가 대부분 해소됐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비중을 늘릴 시점이라는 분석에 강세. 갤럭시S6의 판매 부진 우려로 관련 부품·소재 업종 주가가 지난 한달 동안 평균 40% 하락했고, 일진디스플레이는 갤럭시S6와 관련이 없음에도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둔화 우려로 동반 하락.

그러나 전략 고객사의 중저가 스마트폰 신규 출시 일정이 당초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진디스플레이의 터치패널 부문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주가 하락에는 코스피200지수 제외 등 수급 영향도 컸는데, 코스피200 제외 영향은 일단락됐고 터치패널 사업 우려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수급 측면의 악재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

한편 사파이어 웨이퍼·잉곳의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 올해 애플워치의 사파이어 글래스 채택과 함께 신규 스마트폰에도 채택될 가능성 존재. 지난해부터 관련 설비를 증설해 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파이어 웨이퍼/잉곳 실적은 하반기부터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테크윈	5.4%	최근이슈

News & Issue

삼성테크윈, 1.9조 항공엔진부품 공급 계약

삼성테크윈은 16일(현지시간) 파리에어쇼에서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 P&W(Pratt & Whitney)와 항공기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RSP)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48년간 17억달러(약 1.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엔진부품 공급권을 획득.

RSP(Risk and Revenue Sharing Program)는 항공기 엔진의 개발·양산·애프터마켓(유지보수·서비스)까지 모든 사업의 리스크와 수입을 참여자분만큼 배분하는 계약방식으로 항공업계 선진업체들의 사업형태. P&W는 미국 GE, 영국 롤스로이스와 함께 3대 항공기 엔진업체로 꼽힘. 2013년 기준 매출 145억달러 규모.

삼성테크윈의 이번 계약 참여는 지난해 P&W와의 9억달러 규모 공급권 계약, 올해 1월 GE와의 4.3억달러 규모 부품 공급권 계약에 이어 연말에 대규모 사업권을 따낸 쾌거로 평가. 삼성테크윈은 최근 6개월간 총액 30억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둬.

삼성테크윈이 공동개발에 참여한 제품은 P&W의 차세대 GTF(Geared Turbo Fan) 항공기 엔진. 세계 최초로 기어(gear) 방식이 적용된 고효율 엔진으로 연료소비율, 소음, 성능개량 가능성 측면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향후 리저널 제트(130석급 이하) 항공기 엔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삼성테크윈은 GTF 엔진 터빈부의 고압·저압 터빈 사이에 장착되는 MTF(Middle Turbine Frame)의 개발·생산을 책임진다고 설명. 삼성테크윈은 "이번 RSP 참여를 통해 3~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일반 부품 공급업체에서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지위가 격상됐다"고 언급.

한편, 삼성테크윈과 P&W 간의 '30년 의리'도 항공기 엔진 업계에서 화제를 낳고 있음. 지난 1985년 6월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은 직접 프랑스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P&W의 최대주주인 UTC그룹 그레이 회장을 만나 처음으로 RSP 협약을 체결. 삼성테크윈은 이후 30년간 항공기 엔진 사업에 심혈을 기울임.

삼성테크윈은 당시 이 회장이 나온 협약식 사진을 공개.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열악한 산업인프라를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있는 협약이었다고 소개. P&W는 30년 만인 올해 다시 삼성테크윈과 대규모 항공기 엔진 공동개발사업을 벌이게 됨. 삼성테크윈은 그 동안 KF-16,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KHP 헬기, 한국형 헬기 수리온, 한국형 위성발사체 KSLV-II 사업 등에 참여.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SDI	7.0%	최근이슈

News & Issue

삼성SDI, 2분기 케미칼, 전자재료 호조 예상

삼성SDI의 2분기 영업이익은 242억원(QoQ 253%)으로 예상됨. 당초 예상에 비해 소형전지의 실적은 미흡한 반면, 케미칼의 호조와 전자재료의 선전이 지속될 것. 소형전지는 주요고객의 Flagship 모델 및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동향과 더불어 폴리머전지의 출하량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판가조정 영향이 더해지고 있음.

중대형전지는 주요 EV모델 및 신규PHEV 모델형 자동차전지 출하증가, ESS의 일본수요 회복 및 신제품효과로 매출은 38%(QoQ) 증가하겠지만, 높아진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적자폭은 소폭 개선되는데 그칠 것. 이에 반해 케미칼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약세로 우호적인 스프레드 추이가 이어지고, PC 일부 라인상각완료에 따라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자재료는 편광필름, 반도체소재, OLED 소재가 역대 최고성과를 실현하고 있고, 전방수요도 우호적.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대형전지의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그 폭은 완만할 것. 3분기 영업이익은 467억원(QoQ 93%)으로 예상됨.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1) 소형전지는 고가인 폴리머 비중 확대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3분기부터 신규 폴리머 증설라인의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

2) 전자재료와 케미칼은 계절적 수요 회복기를 맞게 되고, 케미칼의 스프레드가 급속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편광필름과 OLED 소재는 생산성 향상노력에 힘입어 이익기여가 확대될 것. 3) 자동차전지는 신규고객 확보 가능성 존재.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템이 둔화되고 있는 형국에서 전방산업과 고객이 다변화돼 있다는 점이 상대적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컴투스	7.4%	최근이슈

News & Issue

컴투스, 하반기 신작모멘텀 기대감에 강세

컴투스가 하반기 신작모멘텀 기대감에 강세. 서머너즈워, 소울시커 등 주요 매출원의 안정적 매출흐름 유지 전망. 2Q15 이후 다양한 스포츠 장르 신작 및 원더택틱스 등 RPG 중심 핵심 기대신작 론칭 일정 집중. 2H15 신작모멘텀 형성 가능성.

마케팅비의 경우 1Q15는 서머너즈워 공격적 마케팅으로 급증. 2Q15는 1Q15와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 그러나, 3Q15부터 1Q15 - 2Q15 수준보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1,9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M&A 빅딜을 위한 총알 마련 차원 가능성. 하반기는 신작모멘텀 형성 가능성, M&A 빅딜 등을 통한 모멘텀 형성 가능성 동시 상존.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에스디	-2.5%	최근이슈

News & Issue

이부진-이서현 '삼성SDS 주식' 담보 풀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기획 사장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삼성SDS 주식 상당수를 되찾음. 16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이부진 사장이 2011년 12월 우리은행에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215만주(보유 주식 가운데 71%) 가운데 194만주의 질권이 지난 1일 말소됨.

이에 따라 은행에 묶인 이부진 사장의 주식은 21만주로 감소. 이서현 사장도 2012년 5월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40만주 가운데 28만주의 담보 계약을 같은 날 해지.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것. 이부진 사장의 대출액은 2011년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10만원 안팎이었던 점과 담보가액의 60~80% 정도가 대출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약 1,500억원 안팎으로 짐작됨. 이서현 사장의 대출액은 200억원대로 추정됨. 삼성에스디에스는 상장 뒤 주가가 크게 올라 담보 설정 때보다 갑절 이상 가치가 상승.

당시 재계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지분 정리를 위한 현금 마련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됨.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이부진 사장 등이 회사 투자와 관련해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두 사람은 담보에서 풀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됨.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지난달 대주주가 주식을 내다팔 수 없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났고 이번에 질권 말소돼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다"고 언급. 두 사장은 나란히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3,018,859주(3.9%)씩을 보유하고 있어, 약 7,900억원(16일 종가 261,000원 기준)의 가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8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